

# “강진, 고려청자 제작에 선도적 역할을 했다”

고려청자하면 ‘강진’이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1960년대에 가진 청자요지 발굴조사 결과로 증명하는 특별한 학술심포지엄이 최근 강진고려청자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강진 사당리요장 자기제작의 실상과 특징’을 주제로 했다. 강진군 대구면 강진청자박물관 내 고려청자박물관 좌측 토지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이 1964년부터 1970년까지 가진 발굴조사를 토대로 출간된 2015년 보고서를 중심으로 열렸다.

강진군은 울 하반기에 이 지역을 포함, 더 넓은 면적으로 전면 재발굴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발굴 조사의 방향과 주안점에 대해 사전 검토 했다. 특히 심포지엄은 강진 청자요지와 생산방식에 대해 심도 깊게 살피기 위해 2-3가지 주제발표에 대한

## ‘사당리요장 자기제작’ 학술심포지엄 열려 국내 청자 전공 석·박사 과정 학생 등 참석

여유있는 토론시간을 배정해 진행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충북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국내 주요 도자사 전공 학과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과 광주전남권 조사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강진 군민은 물론 도자사 전공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이회관 전 호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주제발표에서 “강진중에서도 사당리라는 지역으로 한정해 이 곳의 청자가마가 고려왕실에서 필요했던 어용자기(御用瓷器)를 생산한 제양수색(製樣須色案) 성격으로 운영되었

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왕실에서 필요한 그릇의 견본이나 도본(圖本)을 강진으로 보내 제한적으로 생산하고, 왕실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체제였다고 본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윤정 고려대 교수는 “사당리내에서도 현재 고려청자박물관이 위치한 당전(堂前)마을에 있는 가마터들과 그 이외 가마터 출토유물의 성격이 상이한 점에 착안해 구분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신준 원광대학교 교수는 현재 전북 부안 유천리 청자요지 발굴조사 참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강진 청



강진고려청자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이회관 전 호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강진 사당리요장 자기제작의 실상과 특징’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자요지 발굴조사에서의 유의할 점까지 부연설명했다.

김국현 강진고려청자박물관장은 “강진고려청자박물관이 2017년에 국가유물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는

사당리20호와 사당리33호 청자요지 발굴유물도 이관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고려청자 연구를 위해 강진 청자요지 유물 확보 등에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 내고장 일꾼



김종식목포시장은 2일 오후3시30분 시청실에서 목포신항만운영(주) 목포장학재단 장학금 기탁식을 갖는다.



신우철완도군은 2일 오전 11시30분 고금청용리에서 열리는 고금청학동 마을공방 준공식에 참석, 축하한다.



황인성영암부군은 2일 오전 8시30분 군청부군수실에서 간부공무원들과 목요티타임을 갖는다.



신안군 환경녹지과 직원들은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매일 도로변에 살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 전남음악창작소 음반제작사업 추진

### 창작·마케팅지원...20일 접수마감

전남음악창작소가 지역 음악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기반 음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음반제작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크로스오버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장르에 이질적인 다른 장르의 요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음악’이다. 이질적인 분야가 교차되고 융합돼 각각의 음악적 특성이 살아있는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크로스오버 음악이다.

전남음악창작소는 지난해 크로스오버 6개팀을 선정해 음반 제작과 지역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지원했다. 참가신청은 음악장르에 관계없이

호남지역에 사는 뮤지션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할 때 순수창작곡 실연영상을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1차 서류 및 영상(음원) 심사를 거쳐 2차 실연공연으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단, 다른 음악창작소나 정부 제작지원금(5,000만원 이상)을 받은 단체(개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가를 원하는 팀은 오는 20일까지 전남음악창작소 홈페이지(www.ogamtong.com)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강진=한태선 기자

### 목포 카약·고무보트 무료 체험교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주최·한국해양소년단전남서부연맹 주관, 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이 오는 9월까지 목포시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열린다.

청소년, 학생과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다. 매주 월·화요일과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오전 2회(10·11시), 오후 4회(2·3·4·5시) 진행된다.

카약, 고무보트 등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 물놀이 안전 및 안전장비 활용법 교육을 한다.

10명 이상 단체로 사전 신청할 경우 생존수영도 교육한다.

한국해양소년단 전남서부연맹 관계자는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어 여름방학을 보내는 청소년에게 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 진도 ‘인구정책 실무 추진단’ 본격 가동

민선 7기 들어 진도군이 인구 증가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대응체계 구축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진도군은 이를 위해 최근 부군수실에서 ‘진도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진도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은 지난 6월말 고흥화와 청년층 인구 유출 등 군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5개 분야 18명의 담당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 늘리기 신규 시책 사업 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해 세부추진사업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단에서 발굴해야 할 대상사업과 일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했다.

특히 주요 인구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서간 협의를 통한 발전방안과 신규 인구 정책 발굴 등을 집중토론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청년동아리 육성사업 ▲산후조리 비용지원 ▲다자녀 산모 한방접착지원 ▲난임부부 영양보충사업 ▲청년근로자 주거비 지원 ▲전국 청년 예술인 캠퍼스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 등 32건의 신규시책 사업 설명과 사업 추진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대해 협의했다.

진도군은 이날 발굴된 신규 시책에 대해 하반기 추경 예산을 확보,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진도=박병호 기자

## 신안 가로수 고사 피해 예방 총력

### 지도읍 등 9개 읍·면에 관수차 투입 순회 살수작업

신안군이 ‘사시사철 꽃이 피는 낙원·아름다운 천사섬’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일 신안군에 따르면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수목 고사 피해가 우려되는 천사섬 분재공원을 비롯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김동우 환경녹지과장과 직원들은 지난달부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청정 신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곳곳을 누비며 경관 정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우선 가로수와 소공원 등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 도로변 약 105km

구간에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대대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쾌적한 도로변을 가꾸기 위해 매일 진화차량 14대와 관수차량 4대 등을 동원하고 자체인력을 투입해 지도읍과 압해읍, 증도면을 비롯 9개 읍·면 지역에 순회 살수작업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 나무에 관수막대를 이용해 뿌리분까지 뚫어 안쪽으로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진행하는 물주기 작업은 수목 생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도로변 가로수 가지치기와 칩닝물 제거 및 도로 풀베기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김동우 환경녹지과장은 “폭염 특보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수목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며 “차량 통행과 보행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박우량 신안군수는 민선 7기 취임 이후 공약사항으로 “섬마다 특성에 맞는 꽃나무와 다년생 화초를 심어 아시아와 세계인이 와보고 싶어 하는 섬으로 조성하겠다”며 “쾌적하고 향기 나는 섬으로 조성해 군민과 관광객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 클릭! 고향 소식



### 나주 통학차량 안전 교육

나주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8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차량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아동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로 인한 원아 사망 사건 등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강연자로는 전남 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박재민 강사가 나섰다. /나주=이재순 기자



### 목포복지재단 선풍기 전달

목포복지재단은 최근 소년소녀가장 및 청소년쉼터 등 60가구를 방문해 선풍기 60대를 전달했다.

재단은 지난 6월 독거노인 등 50세대에 선풍기를, 초보에는 ‘잡! 좋은 사랑의 밥차’에 삼계탕 350마리와 수박 30통을 지원한 바 있다.

이혁영 이사장은 “소년소녀가구를 비롯해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 영광 스케이트 빙상캠프 운영

영광군 드림스타트는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광주 영주종합체육관 빙상장에서 스케이트 빙상체험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빙상체험 캠프 프로그램은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아동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정서적 유대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 화순 복지사각지대 발굴 간담회

화순군은 최근 화순우체국에서 관내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우편원 등 우체국 관계자 6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우편원들의 업무특성상 세대방문을 통해 주민들을 최일선에서 만난다는 점에 착안해 추진됐다.

한편 화순우체국은 주거가 열악한 저소득층 장애인 2가구에 방문교제, 지붕수리 등을 위해 400만원을 지원했다.

/화순=서희경 기자